

汗論集成

학술위원 裴 貞 道
(성심당 한약방)



서론

이 기록은 필자가 한의학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온 공부 노트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단문하여 원전부터 보지 못하고 번역문을 보기 시작했고 조금 눈이 트이며 원전을 찾아 대조한다 하였어도 빠짐이 많고 번역에 충실하지 못함을 바로 잡아 주시도록 감히 청합니다

의미가 있다면 여러 임상가나 연구자들의 기록을 될 수록 많이 모아서 정리한 것이니, 더러 참고가 되신다면 위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문헌을 모은 것이라 체제와 단위를 통일 하느라고 조금씩 손질하다 보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변명삼아 몇가지 적어 봅니다

- 많이 알려진 처방은 이름만 기록
- 근래 처방된 처방은 그대로 전재
- 단위 무게의 단위를 錢으로 통일 최근 중의연구자들은 g을 상용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사오입하여 정밀성이 떨어짐. 특히 그들은 하루 한첩 용량을 기재하였으나 우리의 복용 습속대로 1일 2첩 재탕까지 3복 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기록함. 당삼은 인삼으로 대체함.
- 간자체로 쓰여진 논문들을 우리가 상용하는 한자로 옮겨적는 과정과, 번역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을 것임
-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용약과정에서 理法 方藥 辨因方治의 원칙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특히 국내 임상가들은 이 부분에 빠짐이 많아 앞으로의 연구발표에서는 이점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초심자들이나 저의 초기 공부과정에서 「몇 첩이나 써야 하는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사용하는 약재가 정확한 약재인지?」 당혹했던 경험이 있었음을 상기하여 임상연구기록들이 될수 있는대로 많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1. 津液論

(1) 氣가 쌓여서 津液이 되는 경우

① 直格書에 「옛사람의 말씀에 陽中에서 陰을 낳고 陰中에서 陽을 낳는다」 「液을 쌓아서 氣를 낳고 氣를 쌓아서 液을 낳는다」

② 朱子曰 “陽이 변하고 陰이 습하여 처음에 水火를 낳는다” 하였으니 “水火란 것은 氣이며 流動하고 閃爍하여 그 體가 오히려 虛하고 그 形이 未定한데 두번째도 木金을 낳으면 확연히 定形이 있는 법이고 처음의 것(水火)은 스스로 나는 것이다”

③ 程子曰 “坎은 水니 이중에서 비롯함에 有生의 처음이라”

④ 魯齊鮑曰 “物이 처음에 날때 그 形이 다 水火로 되는 것은 만물의 一原이다”

어떤 이가 묻기를 “天—生水란 것이 또한 징험이 있는가?” 답하기를 “사람의 一身에 징험할 수 있으니 貧心이 動하면 津이 나고 중심이 動하면 눈물이 나며 부끄러움이 動하면 汗이 나고 慾心이 動하면 情이 나는 법인데 人心이 寂然하여 動하지 않을 때에는 太極인 법이다 그러나 마음이 한번 動하면 太極이 따라 움직여서 陽을 낳으니 그러므로 心이 動하면 水가 生하게 되는데 이것이 天—생水의 징험이 되는 증거이다”

⑤ 正理에 “陽에서 水가 나서 飲에서 이루어지는데 氣가 처음 動하면 陽이 나고 氣가 모여서 靜하면 水를 이룩하는데 이치를 사람이 숨을 모아서 내어 뿜어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대개 神은 氣의 主가 되는데 神이 動하면 氣가 따르고 氣는 水의 母가 됨으로 氣가 한데 모이면 水가 된다”

2) 體內的 津液의 경우

① 영추에 “주리가 發泄하면 땀이 나서 찢찢찢한데 이것을 津이라 하고 津이 탈락하면 주리가 열리고 땀이 大泄한다”

② 資生에 “水穀이 체내에 들어가서 氣가 충만하면 진한 액이 뼈에 들어가고 뼈의 굴신이 이에 속하며 진액을 끌어들여서 뇌수를 보익해 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을 液이라 한다 液이 탈락하면 뼈의 굴신이 불리하며 皮色이 마르고 뇌수가 소모되며 아프고 귀가 자주 울린다”

수곡이 입으로 들어가서 腸胃에 수송되면 五種으로 나뉘지는데 일기가 차고 옷이 얇으면 尿와 氣가 되며, 일기가 따뜻하고 옷이 두꺼우면 땀이 되고 悲哀의 기가 어울리면 泣淚가 되며 속이 열리고 胃가 늦춰지면 唾가 되고 邪氣가 안에서 逆하면 氣가 막히고 운행치 못해 水腸症이 된다

■ 학 술

③ 內經에 “주리가 발설하여 땀이 盛한 것을 津이라 하고 津이 피부의 구멍에 엉겨 붙고 운행하지 않는 것을 液이라 한다”

④ 東垣曰 “大腸은 津을 주관하고 小腸은 液을 주관하는데 대소장이 어울려 胃의 營氣를 받아서 진액을 상초에 전송하고 皮毛에 灌泄하여 주리를 충실케 하니 만약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胃의 기가 모자라면 대소장이 안주할 곳이 없어 津液이 고갈한다”

2. 諸家의 汗論

內經에 “人之汗, 以天地之雨名”

영추에 “五臟化液 心爲汗 肝爲淚 脾爲涎 肺爲涕 腎爲水”

× 汗은 臟腑기능의 失調와 그외적 표현 비정상적으로 새는 것으로 봐야 할 듯.

(1) 정상적 생리적 出汗

① 內經에 “인체의 陽氣가 陰液을 증발시킨다”

② 소문음양별론에 “陽加陰阻 謂之汗”

③ 소문열론에 “天暑厚衣則膝理開 故汗出 暑當與汗 自出, 勿止”

(2) 병리적 出汗

① 소문경맥별론에 “故飲食飽甚 汗出于胃 涼而奪精 汗出于心 持重遠行 汗出于腎 疾走恐懼 汗出于肝 搖滯勞苦 汗出于脾”

② 소문거통론에 “炅則주리게 營衛通 汗大泄 故氣泄矣”

③ 소문경맥편에 “六陽氣經則 陰陽相離 離則 主裏발설 經汗乃出”

④ 금례수기병맥증병치에 땀을 「外感汗出 汗出而喘 도한 황한」으로 나눠 설명
변증은 “在表 在裏 爲寒 爲熱 屬虛 屬實”로 나누고 처방은 「조화평위에 계지탕, 청열생진에 백호탕, 통하사화에 승기탕 리습퇴황에 인진호탕」을 소개함

⑤ 隨代 소원방의 제병원후론에 虛勞汗候 風虛汗候가 기재되었고 陽虛와 衛陽不固라 인식함

⑥ 唐代 손선생의 천금요방에 상한뒤의 汗不止에 대한 처방 11종을 소개하고 또 마황근 모려 감초 퇴환 건강을 作粉하여 몸에 두드려 止汗하는 방법 소개

⑦ 宋代 주광의 류증활인서에 「傷寒··自汗者九證 영위불화 傷風 風濕 中濕 中暑 陽明病 亡陽 柔痙 攣攣 皆自汗」이라 함.

× 이상은 汗에 대한 일반론이고 汗의 종류별 해설에서 다시 종류별로 소개함.

3. 發汗의 원인 고찰

(1) 營衛不和

① 衛氣는 진액을 보호하여 새지 않게 한다 폐기가 부족하면 기표가 疎闊해져서 주리가 열려 땀이 난다.

② 증치준승에 「혹 폐기가 미약하여 영위가 제대로 행하지 않아 탈진된다. 그 외에 풍사가 表虛한 몸에 침입하거나 濕邪가 肌膚에 머물면 영위불화하여 땀이 난다」 함.

(2) 裏熱熾盛

① 풍한입리화열하거나 風濕을 감수하여 暑熱을 받아 폐에 붙으면 폐열이 끓어 진액을 증발시켜서 大汗出.

② 소문거통론에 “炆則주리開 營衛通 汗大泄”이라 하였으니 만약 裏熱이 오래 쌓이면 肺胃에 열성하고 傷津하고 臟이 燥해지니 진액을 몰아내어 외설시켜 땀이 난다 또 음식 不節에도 원인이 있으니 신랄한 것을 과식하거나 灸박之人은 위장에 열이 쌓여 汗出한다.

(3) 濕熱動蒸

① 음식부절제 혹 외감습사 손상비위 脾胃失運 濕濁中阻 온구화열 습열혼증 肌表하면 自汗하고 머리에 上蒸하면 頭汗出 四末에 이르면 수족한출 습열이 간담에 쌓이면 담즙이 汗液을 따라 외부에 스며나와 황한이 된다 습열이 오래되면 陰血이 상해서 도한이 된다.

(4) 飲虛火旺

① 心主血 腎藏精인데 邪慮過多, 起居不慎 亡血失精 血虛精虧하면 虛火가 内生하여 飲津이 傷하고 自臧하지 못해 外泄하니 땀이 난다.

② 증치준승도한편에 「허로의 병이 大病后에 陰氣가 회복되지 못한데서 생기거나 濕熱이 아직 머물러 혹 과로 칠정생육지화 陰精소모, 혹 음식 藥味로 인해 內熱이 쌓이거나 하니 이 모두가 陰血을 손상하고 形氣를 쇠하게 한다. 陰氣가 虛하면 陽氣를 配하지 못하 陽氣가 內蒸하여 도한이 된다 만약 久患寔眠之人이 心血이 暗耗되고 심신이 피습되어 陰이 陽을 따르지 못해 정서가 격동되어 한출」

(5) 陽氣쇠약

소문생기통천론에 「陽者衛外而圍也」라 하고 「久病重病에 정기가 손상되고 화원불충한즉 양기가 쇠약해져 不能收斂하니 汗液妄泄하며 심하면 亡陽之變이 되어 絶汗이 된다 氣陽虛가 심하면 폐기허, 심기허, 심양허, 비기허, 신양허가 골고루 따라 진액보호가 안되어 외설

■ 학 술

한다. 마약 高熱暴泄하여 陰渴이 되면 陰陽絶離되어 之陽 脫汗에 이른다」함

(6) 正邪交爭

급성 열병증을 실치 오치하거나 正氣素虛하여 病邪가 氣分에 계류되어 불거하면 正邪가 싸우니 戰慄하고 뒤에 한출하여 전한이 된다.

4. 汗의 種類區分

(1) 自汗 . 주로 낮에 나는 땀 움직이면 심해지나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땀.

(2) 盜汗(寢汗) : 주로 밤에 나는 땀 움직이지 않아도 난다.

(3) 黃汗 . 옷이 노랗게 물들 정도로 누린 땀

(4) 戰汗 . 급성열병중에 전를후에 땀이 남.

(5) 脫汗(絶汗 脫汗 漏汗) : 땀이 줄줄 흐름(淋리), 기름같은 땀. 肢冷 息微 급병 중병에 나타나고 亡陽으로 이어짐.

(6) 紅汗(血汗) : 피빛 땀

(7) 臭汗(腋汗) . 전신에 냄새 풍기는 땀.

(8) 柔汗(冷汗, 油汗 粘汗) 中經曰 유한이 황색으로 발하면 脾絶症이다. 註에 이르기를 柔는 陰이 되는 것인데 유한은 冷汗이다 또 油汗이라고도 하였으니 즉 粘汗이 끈적끈적 달라 붙는 것이다

(9) 陰分汗(국소한) 頭汗 面汗 頸汗 腋汗(냄새없는) 手足汗 陰部汗 上身汗 心胸汗 下肢汗 片汗

(10) 無汗 . 당연히 땀이 날 상황에도 안나는 상태

(11) 小兒汗 . 소아의 체질이 다르니 별도 취급함.

5. 汗證各論

(1) 自汗論

A. 諸家の 자한론

영추云「衛氣가 주리를 살찌우고 개벽을 맡았으니 衛氣가 허하면 주리가 疎闊하고 개벽의 主司가 없어서 땀이 많다」

정전云「자한이란 수시로 축축히 땀이 흐르고 움직이면 심해지며 陽虛에 속하고 衛氣가 맡은 바이니 치법은 보양조위하라」

입문云「땀이 많고 몸이 연한 것은 습기 때문이다 비는 습을 주관하는데 습열이 부딪히면 마치 땀의 증기가 구름, 비, 안개, 이슬이 되는 것과 같으니 調衛湯 옥명풍산을 쓰고 胃熱에는 二甘湯을 써라」

동원云「내상 및 일체의 허손증에 자한이 몇지 않으면 보중익기탕에 부자 마황근 부소맥을 조금 가해 쓰면 신호하다. 다만 승마, 시호는 밀수초해 써야 맹렬한 승발의 기를 죽이고 인삼 황기의 약성을 끌어올려 肌表에 이르게 한다」

동원云「중경의 계지탕은 외감, 풍사자한을 다스리는 성약이요, 황기건중탕은 외감기허와 자한의 神劑요 보중익기탕은 내상기허와 자한의 묘방이다」

기허에는 인삼, 황기에 계지로 가감

眞陽이 허하면 부자를 소변에 끓여 쓴다 화기가 胃中에 상역하면 역시 땀이 나니 양격산을 써라 자한에 생강을 大忌하니 주리를 열기 때문이다.

성무기의 상한명리론에「自汗之證 又有表裏之分 虛汗之導焉 傷寒盜汗者 非若雜病之虛 是有邪氣在半表半裏使然也」

자한에 각기 음양의 증이 있다 반드시 양허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상에서는 외감, 내상을 구분하고(외감은 실증 내상은 허증이 많음)表와 本을 판별하여 主次를 정하고 논하지 않으면 傷心한다

경약 한증편에「不問朝夕 動或不動 醒時汗出 名曰自汗 自汗者 晷然無時 而動作則 益甚」

삼인방에「無問昏醒 浸浸自出者 名曰自汗」

동의보감 자한문에 아홉가지 증세가 있다 하고 寒問에 상술돼있다 하였으나 실제로 한문에는 기록이 없다

B 병태적 자한의 변인방치

① 영위불화로 인한 자한

a 증상 : 汗出惡風 周身酸痛 微發熱 時寒時熱 두통 맥은 浮緩 舌苔는 薄白.

營爲實和하니 주리가 열려 한출오풍 주신산통 風邪가 재표하니 맥부완 두통 발열 소아나 만성병 회복기에 출현.

b 원인 : 表虛 체질은 衛氣가 약하여 주리가 固密하지 못하고 營陰도 부족함으로 풍사

■ 학 술

의 침노를 받기 쉬우며 풍사에 의한 음양실조가 뚜렷해서 땀샘의 개폐기능을 잃어 出汗한다

c 치법 . 調和營衛

d. 처방

계지탕 - 계지 백작약은 영위조화, 감초는 佐하고 和中 외사가 있으면 수증가감

계지가 용골모려탕 - 失眠久患 정서격동출한 - 因 음양실조

황기계지오물탕가 부소맥 하모려.

② 肺脾氣虛로 인한 자한

a 증상 · 久病咳喘, 體弱, 納少 한출오통, 動即益甚 面無華萎黃, 맥弱 설태박백.

b 원인 肺主皮毛 脾主肌肉하니 納少하고 脾氣不充이니 肌表不實 皮毛不固 주리가 疏闊하니 畏寒惡風한다

動即氣耗하며 氣不攝津하니 汗出益甚 脾運不健하니 음식생각 없고 안색이 누렇다

c 치법 . 益氣固表

d. 처방 옥병풍산

황기는 生用하여 익기고표지한, 백출은 건비화습, 방풍은 꼭 炒해 써야 하며 생으로 쓰면 發汗하며 小佐走表하여 황기의 익기고표 之功을 도움 汗出甚多하면 마황근, 부소맥, 나도근 하용골, 하모려 등 止斂飲劑를 가하고 기허하면 인삼, 황정 구감초로 건비익기하라

③ 心肺氣虛者汗

a 증상 · 自汗常作 動即甚 畏寒, 氣短促 倦怠뇌언, 감기 잘걸리고 설태박백, 맥완, 무력滑

b 원인 心은 汗液을 다스리고 肺는 氣를 다스리는데 밖으로 皮毛와 습한다 심폐의 기가 허하면 衛氣가 부족해져서 주리가 이완되고 진액이 外泄하여 汗出.

c 치법 익기고표지한

d 처방 옥병풍산가감, 보중익기탕 - 소음인에게는 승마, 시호를 빼고 곽향, 소엽을 넣는다

④ 氣虛자한

기附湯(밀초황기, 포부자, 각 2 5전 干三)

⑤ 心氣虛자한

삼귀요자(인삼, 당귀 각 5전 猪心 1개를 내고 그 피에 물 2대접 넣고 다려 1 5대접된 뒤 약을 넣고 0 8대접되게 다려서 그 물로 고기를 먹음 - 丹心)

⑥ 陽虛자한

a. 증상 · 自汗常作 動即甚 形寒肢冷 神倦乏力, 氣短畏寒 善熱陰, 변당박 面色萎黃 泄痰 苔白, 맥허약, 기허자한과 달리 식욕부진 변당, 사지냉, 腰膝산軟 항상 추위담.

b. 원인 · 주로 脾腎과 관련 脾는 氣血生化之源 腎은 眞陰을 藏하고 元陽과 더불어 固密을 유지, 소문음양응상대론에 이르면 「陽在外 陰之使」이니 脾腎兩虛도 陽기가 陰液을 固攝하지 못한 탓이다.

c. 치법 · 渴陽斂陰 助陽益氣 固表止汗

d. 처방

팔미환 습 보중익기탕에 하용골 하모려 오미자를 가함

육병풍산 황기건중탕, 모려산에 인삼 황기 백출, 흑 마황근 오미자 가미 수술후의 惡風自汗에는 인삼 당귀 加

⑦ 외감기허자한 삼기건중탕

⑧ 내상기허자한 · 보중익기탕 가 마황근1 5 부소맥2, 모려10전

⑨ 陰虛자한 혼하지 않다

a. 증상 · 少眠, 易悚, 夜寢啼哭 大便難 자한

b. 원인 肝陽부족이나 偏抗, 疎泄太過로 원래 脾虛肝旺하거나 소아의 열병후에

c. 치법 益陰柔肝

d. 처방 일관전 加 백작약, 등심 하모려. 허로성이면 肺腎虛 金水부족으로 인한 해수가 있으면 治以酸甘으로 化陰抑陽해야 하니 육미원 습 생맥산

⑩ 氣飲兩虛

a. 증상 · 자한 진작 한출 전 심번 懊穰, 面部升火 洪熱 汗出如頭粒

b. 원인 · 자율신경기능 실조.

c. 처방 보중익기탕 加 부소맥 마황근 오미자 陰虛火旺하면 加 생지황, 별갑, 지모, 지골피, 황백.

⑪ 表虛자한

a. 육병풍산 기허하면 습 보중익기탕 음허하면 습 생지황탕

b. 소건중탕

c. 황기건중탕

d. 계지 加 황기탕 - 마르고 허약체질에

⑫ 裏熱燻蒸

■ 학 술

a 증상 . 혼증한출 面赤발열, 頭, 手足汗出. 口渴 氣粗 喜冷飲 홍복창만, 번조불안, 대변 乾不行, 맥은 홍대, 활삭혹 침실, 설태는 黃이粗

b. 원인 : 陽旺이면 본래 裏熱 好飲多食하여 醇熱이 쌓여 熱邪在表하여 蒸迫津液外泄하니 蒸蒸汗出 面赤氣粗 津液被動하니 口渴飲冷하고 대변乾結, 氣分에 熱이 쌓이니 속식정체 하여 열이 나고 맥이 滑 數沈實함은 燥結에 속함 舌苔黃이는 속식에서 오고 黃粗함은 裏熱에 化火한 것임

c 치법 · 清泄裏熱

d. 처방

燥尿無 죽엽석고탕(죽엽, 석고로 기분열을 清泄, 인삼(代사삼) 맥문동으로 滋陽陰하고 裏熱이 清하면 自止)

속식 在胃 - 消導化胃泄熱 - 보화환가감

便乾結, 潮熱汗出, 脈沈實에는 조위승기탕 조위승기탕으로 안되면 대승기탕으로 攻下結熱하라

⑬ 風濕傷表자한

a. 증상 自汗斷續, 汗量少 오통의한, 身困重, 麻木 小便短少, 설태박백, 맥부완활유 주리게폐실조 - 自汗量少, 오통, 맥부완

풍습이 阻絡하여 身困重, 麻木 맥유활

습사 阻삼초소통 방광不利 - 뇨량감소

풍습 在肌表 無熱 설태박백

b 원인 . 풍습에 의한 감기나 비증에 보임 邪가 肌表에 침입 衛氣손상 - 주리게폐실조 류증치재한증편에 若夫 風濕相搏 時作汗出 惡風自汗

c 치법 : 祛風化濕 익기고표.

d 처방 · 방기황기탕 가감.

⑭ 熱盛陽明자한

a. 증상 : 자한빈발, 한량다, 고열 面赤 번갈多飲, 설태건황, 맥 홍대 有力

b 원인 상한이 化熱傳入陽明 - 여름 아니라도 발병.

c 치법 : 清熱瀉火

d 처방 · 백호탕 가감

⑮ 上暑氣陰자한

a 증상 : 자한빈발, 한량多, 번갈인음, 흥겨비민, 설홍, 설태황건, 맥홍대무력.

- b. 원인 . 暑邪로 氣陰소모
- c. 치법 . 清暑泄熱 益氣生津.
- d. 처방 : 청서익기탕

⑩ 水氣上逆자한

- a. 원인 : 膀胱氣虛實司 - 洲都不利
- b. 치법 : 通利, 洲都
- c. 처방 : 오령산 가미

백출, 택사, 복령, 황백, 지모, 육계사용.

⑪ 濕熱鬱蒸자한

- a. 面黃, 汗出浸衣, 頭昏, 口苦無味, 不慾飲食, 胸悶不通.
- b. 황련온담당

⑫ 濕鬱肌膝자한

- a. 氣肌不暢 영위불화, 汗出前肌肉산固
- b. 益氣滲濕.
- c. 방기황기탕(창출로 代백출 加행인 의이인)
- × 주로 흰색피부에 물렁살진 사람.

⑬ 脾胃積熱자한

a. 소아의 비위허약에 肥甘厚味多食 - 積滯不和 - 鬱而生熱 - 積熱動蒸 - 迫津外泄 - 頭
腋四肢 한출

- b. 消積導滯.
- c. 지출환

⑭ 肝氣鬱滯자한

- a. 정신 억울, 眩暈, 頭脹, 乳房痛, 脇脹痛, 小腹痛.
- b. 간기不和, 氣鬱不暢.
- c. 五鬱散(울금, 오배자 末을 꿀로 개어 양쪽 유두끝에 붙임)
- d. 소요산 加 계지, 백작약

⑮ 血瘀胸部자한

- a. 舌質瘀斑, 흉중의 열이 분출하지 못해서.
- b. 혈부축어탕 加 청피, 지골피.

⑯ 自汗不止

■ 학 술

- a. 옥병풍산 加 모려, 부소맥, 오미자
- b. 소견증탕, 加 계지 5전 포부자 반매, 간七棗二
- c. 계부탕(제생방)

㉓ 外感자한 - 계지탕

㉔ 漏風(酒風)

내경 - 身熱懈墮하고 땀이 목욕한것 같으며 畏風少氣 심하면 身熱喘息 옷이 젖고 갈증나고 힘든일은 불가능하며 백출산 주치.

백출산 - 飲酒中風多汗

방풍 2 5, 백출 1.2, 하모려 3전 작말 2전 온수복(하루)

C. 諸家자한처방 모음

① 중의 임준 - 가미보중익기탕

하모려 4, 밀구황기, 부소맥 2, 인삼, 초백출, 생당귀, 마황근 1 5, 초구승마, 구감초 1, 초시호, 진피 0 8전 10일간 복용

② 간명 醫殼方

인삼 밀구황기, 복령, 백출, 당귀, 백작약, 황련, 초연산조인, 모려 1전, 계지 0 7전, 구감초 0 5전 부소맥 1줌, 오매 1개 대추 2

不止 加 오미자, 육계, 마황근, 虛人 加 산수유, 육종용

濕盛 加 복령, 방풍, 택사, 백지

陽虛 加 부자,

火盛培 황련

熱極 加 양격산, 甚不止加 부소맥 반升.

③ 제화당 정봉주 方 - 가미補全飲

황기 3, 인삼, 백출, 구기자, 숙지황, 당귀, 천궁 1 5, 백복령, 감초, 용골, 계피, 감초 1 전

④ 회춘당 이현모 方 - 가미보중익기탕

밀구 황기 5, 백출 3, 당귀, 인삼 2, 진피, 감초, 방풍 1, 시호, 승마 0 5전

⑤ 중의 임가곤 方 - 오령산 가미

택사, 저령, 백출, 백작약 1.5, 복령 2, 계지 1, 육계 0 5錢.

汗出如洗, 乏力, 畏寒, 不慾飲. 便干 身산 - 溫陽利水

⑥ 별방모려산 모려산 加 용골 1돈 은시호, 부소맥, 복사삼 1전

⑦ 모려산 대병후 諸虛不足, 常汗, 驚悸, 누우면 심하고 오래 지속됨.

하모려, 마황근, 황기, 지모 1돈 爲末 부소맥, 煎水로 2전식 조복

⑧ 황기탕 · 음양 片虛, 자한 도한에(의종금감 方).

밀구황기 22, 생견지황, 천문동, 마황근 15, 당귀 12, 맥문동 1, 오미자, 부소맥, 감초 07, 방풍 0.5전

⑨ 삼기탕(의종금감) - 자한

밀구황기, 인삼, 백출, 당귀, 숙지황, 주초백작약, 초산조인, 모려분 1, 진피 07, 감초 0.2 棗二 부소맥 1줌, 오미자 1개

⑩ 尢령湯 허한(직지방)

황기, 방풍, 백복령, 마황근 5, 감초 25을 썰어 7전을 부소맥 1粒과 同煎服

⑪ 진액단 자한

밀구황기 25, 제대부자 20, 초방풍, 초백출, 주초육계 10, 산조인 10, 酒糊丸梧子大 50 환, 溫酒服

⑫ 십전대보탕 - 피로가 극심하고 허약한 사람

(2) 盜汗論

A 諸家の 盜汗論

① 상한명리론 「盜汗者 謂睡而汗出者也」

② 소문육원정기대론 - 寢汗으로 기술

③ 금궤혈비허로 맥증병치론에 도한으로 기술

④ 경악한론에 「汗出 - 證 有自汗者, 有盜汗者 · 盜汗者 寢中通身汗出, 覺來漸收」

「盜汗 · 亦各有陰陽之證 不得謂盜汗必屬陰虛也」

「내상, 외감을 구분해야 하며 내상은 주로 허증, 외감은 주로 실증으로 보나 허증도 적지 않다 허실 협잡, 기음양허도 있다 주로 음허, 혈허에서 오니 補陰清熱收斂하라」

⑤ 내경에 腎病환자는 寢汗이 나고 畏風

⑥ 성무기로 도한은 수면중에 나고 깨면 그친다

⑦ 정전에는 「수면중에 전신이 목욕한것처럼 되고 깨면 그치니 음허에 속하고 영혈이 주관하는 증임으로 補陰降火하라」

⑧ 단심에 음허 혈허하고 火가 있으니 당귀 육황탕을 쓰되 약성이 차니 허한자에게는 황

▣ 학 술

기 육일탕을 쓰고 음허도한발열에 사물탕 가 황백, 지모하여 쓰고 기허에는 인삼, 백출 황기를 가하라.

⑨ 동의보감에 腎火가 動한증에는 정기탕을 쓰고 脾濕盛이면 四製白朮散 肝熱에 용담산 즐려 눈감으면 땀나면 膽熱이니 소시호탕을 쓰고 당귀 지황탕, 모려산 황기탕을 통용하라

B. 도한의 辨因方治

① 心血不足도한

a 증상 心悸 少寐, 面色不華, 氣短被勞, 睡則汗出, 맥세허, 舌淡苔薄

심신피로로 심혈을 소모하거나 오랜병에 혈허하니 血下養心하여 心悸少寐하고 · 腎氣浮越한 睡不盜汗한다 기혈불충이면 면색불화, 肌山神被, 혈허하면 맥세설담.

b. 치법 : 補血養心, 斂汗.

c. 처방

귀비탕 가 용골, 모려, 오미자

백자인탕 - 인삼, 백출, 대추로 健脾益氣 以資化源 모려, 오미자, 마황근으로 斂陰 止汗한다

肢冷身寒, 맥침세, 권태, 리언이면 屬氣

② 陰虛火旺도한

a. 증상 骨蒸潮熱, 형체소수 久咳虛喘, 虛煩, 少寐, 惡心 번열, 寐則한출, 여자는 월경부조, 남자는 몽유滑精, 양권홍조, 맥세삭, 설홍少苔

亡血失精, 肺勞久咳로 血耗 虛火內盛 迫液外泄하니 入寢도한, 형체소수, 골증조열, 오심번열, 熱抗神明하니 허번소매, 음허화왕 상화망동하니 몽유 월경부조, 음허화왕하니 맥세삭 설홍소태

b 치법 滋陰降火

c 처방

당귀육황탕 가 나도근 부소맥 당귀 二地는 자음양혈하니 중용하고 황련, 황금으로 清心肺火, 虛火甚이면 양을 줄여라 황백은 상화를 瀉하고 堅飲 황기는 익기고표.

미맥지황환 가 용골, 모려 나도근, 오래돼 肺腎飲虧하면 斂陰

골증조열에는 지모, 지골피, 청호, 귀판, 별갑 으로 滋陰除熱

③ 陰虛도한

a 「寂時衛氣人裏 榮衛被襲外世」 어떤 장부가 음허하느냐에 따라 다양함

- b. 心陰虛因사려과다 : 도한, 심번, 심계, 실민, 다몽, 맥세삭 - 천왕보심단
- c. 腎肝胃음허에는 각 장부에 음액보충
- d. 삼초화왕 도한, 관홍, 순건口燥, 골증조열, 오심번열, 맥삭 - 大補陰液 - 당귀육황탕 - 토, 녹혈하면 황기빼고 맥문동 오미자를 加

④ 陽虛도한

- a. 증상 · 안면홍열, 이명, 심계, 동즉출, 식욕부진, 夜寐도한, 肢冷 神被乏力 오풍, 퇴풍, 구갈 희열음, 변당, 尿少短赤 舌淡紅斑, 맥완무력
- b. 치법 · 溫陽益氣主 斂陰止汗次
- c. 처방 · 위기약 唇淡 심계맥완 - 溫通陽氣 - 이중탕, 계지부자탕, 기부탕 가 용골 모려, 부소맥

脾虛實運 - 계지가 용골모려탕

하지부종, 신피핍력 - 진무탕

素體虛, 陽片虛에 황기건중탕 합 옥병풍산.

陰陽兩虛에 임삼양영탕 가 마황근 나도근, 백자인

- 남은 이병은 方 - 부소맥, 용골, 모려 8, 인삼 4, 부자, 백작약, 복령, 오미자, 마황근 3, 부처손, 목향 1 5전 5첩쓴뒤 나오면 소합향원이나 향사이중환으로 조리

⑤ 脾虛도한

초나도근 5 의이인 4, 곽향, 복령, 범반하 2, 후박 1 6, 백두구 1.5, 초창출, 진피 1전(중의잡지에서)

⑥ 脾虛濕阻도한

- a. 증세 常作도한, 續두통, 體困倦 식욕부진, 口니, 舌淡태백박이 맥유완
- b. 원인 · 生冷油厚味과식, 식사시간 불규칙, 부절제로 脾에 濕濁이 생겨 脾氣升降失調
- c. 치법 和濕和中 宣通氣機.
- d. 처방 곽방궁하탕(가 나도근, 진피, 창출, 去행인, 저령, 담두시, 택사) . 반하 복령, 담두시 3, 곽향, 행인 2, 강제반하, 저령, 택사 1.5, 후박 1, 백두구 0 6전.

⑦ 邪在반표반리도한

- a. 증세 한열왕래, 경과급박, 兩脇滿悶 口苦 오심, 설태박황, 맥현 활삭
- b. 원인 열병초증기에 邪實 - 외감후 表症未解入소양 - 邪正相爭 - 迫津外泄
- c. 치법 和解小陽
- d. 처방 소시호탕 去 인삼, 대추 가 황련, 건벽도

▣ 학 술

⑧ 영위불화도한

- a 증상 도한발열, 맥부, 주야발한
- b 원인 : 體虛邪入 - 陰陽失調 - 衛虛不固
- c 처방 : 계지탕 가 부소맥, 산조인 오미자

⑨ 습열도한

- a 증상 · 구이 권태무력, 頭重, 맥연
- b 원인 : 습열內溫 鬱而化熱 - 脾虛濕阻, 升降 失調.
- c. 처방 : 和濕運中
- d. 처방 · 삼인탕 가 마황근, 나도근, 忌오미자, 소맥등 斂酸陰陽약물
창출위주 - 桴향 의이인 행인 구인.

尿少汗多 - 오령산 培 육계로 水濕 下行하라

비만, 口苦口渴, 黃汗 便乾, 尿赤, 舌紅, 설대박황이, 맥세활하면 清利濕熱爲主止汗으로
보좌 부소맥 5, 익원산, 의이인 3, 인진, 황기 2, 한방기, 백작약, 황금, 마황근 1 5전

⑩ 血瘀도한

- a. 증상 舌瘀斑, 身瘦 맥현세삼 피부마목
- b 처방 和瘀利氣

중의 만희문 - 모려 4, 생지 2 당귀, 적작약, 산조인, 옥병풍산, 단피 1.5돈, 도인 홍화 1
전 10일 복용

중의 대금성 - 流汗 전신산통, 口渴引飲, 맥현 설담홍, 태백 氣虛血瘀, 益氣活血止汗 부
소맥, 계혈등, 모려 4, 인삼, 황기 3, 단삼 2, 당귀미, 오미자 1.5전 7일간 복용

⑪ 傷食도한

a 소아상식도한, 관홍 夜熱도한, 身倦懶動, 形瘦, 口乾, 喜冷陰, 納매, 便結하면 肝旺脾
弱이니 자생탕(현삼, 작약, 백출, 계내금, 초우방자)

b. 食滯胃熱도한, 面赤心煩 치은腫痛, 변비, 맥삭, 유력하면 瀉胃해야 하니 백호탕 加 산
치자 대황, 흑 승기탕류

⑫ 産後도한

사물탕 加 닭 1마리 + 산수유, 황기, 당귀

⑬ 痰熱도한 - 소시호탕

⑭ 情懷所傷도한 - 暴卒復來

- a 증상 불안 다몽, 精神恍惚, 脘脇창민 納少, 권태 乏力, 맥현완

b 원인 : 悲傷肝氣鬱結

c 치법 · 疏肝利氣解鬱

d 처방 복령, 모려 3, 산사, 백작약 2, 향부자, 울금, 백출 1.6, 시호, 단피, 초산조인 1.5, 오미자 1.2, 감초 백두구 0 8전 2~3일 복용

⑮ 陰火도한

下陰火止도한,

정기탕 - 초황백, 초지모 1.5돈 구감초 0 5(入向)

⑯ 肝熱도한

용담산 - 용담, 방풍 등분 작말 매일전을 入寢前 미음으로 조복(직지)

⑰ 氣血兩虛도한

당귀지황탕 - 당귀 숙지황, 생지황, 주초백작약, 백출, 백복령, 밀구황기 1, 염수초 황백, 염수총 지모, 진피 0 8, 인삼 0 5, 감초 0 3전, 부소맥 1줌(의감)

⑱ 虛人도한

삼기탕 - 인삼, 황기, 백출, 백복령, 백편두, 산약, 진피, 갈근, 반하곡, 감초 1전(단심)

⑲ 氣陰兩虛도한 - 중의 오위의

도한 맥침세 침구가 다 젖을 정도

補氣固表, 養陰斂汗

당귀지한전 - 귀판 신당귀 4, 생황기, 옥죽 2, 백작약 1 5, 방풍, 오미자 1, 감초 0 5전

C 제가의 애용처방

① 중의 임준 : 당귀육황탕 가미 - 생황기 3 5, 생지황, 숙지황 1.8, 황백, 마황근, 부소맥 1.5, 한수석 1, 당귀 0 8, 오미자 천련자 0 7, 하모려 4전, 10일 복용

② 제화당 정봉주 : 가미육황탕 - 황기 3, 당귀 인삼, 백작약 2, 숙지황, 맥문동, 백출 1 5, 모려, 생지황, 계피 1, 지모, 황백, 황금, 황련, 오매, 감초

③ 회춘당 이현모 · 가미육황탕 - 황기, 당귀, 황백, 생지황, 숙지황 2, 감초, 계지, 방풍 1 전.

④ 회춘당 한철수 · 가미대황탕 - 황기, 당귀, 주초백작약 2, 숙지황 맥문동, 백출 1.5, 생지황, 진피 1 2, 초지모, 황백, 황금, 황련 1, 주감초 0 7전

⑤ 대전 김기태 · 가미대황탕 - 황기 3, 생지황 숙지황 1.5, 황금, 황련, 황백 1, 인삼, 백출, 백복령, 감초 1 5전.

■ 학 술

⑥ 미상 · 자음강화탕 - 음허화동 도한 오후열에 당귀 2 6, 백작약 2.4, 숙지황, 맥문동, 백출 2, 주초생지황 1.6, 폐모, 상백피 1.5전, 진피 1 4, 염초황백, 염초지모, 구감초 1전, 干三棗二.

⑦ 단계 · 사제백출산 - 백출 4돈을 황기 석곡 모려 소맥 맥부 각 1돈과 함께 노랗게 되도록 炒하여 백출만 취하여 작말 3전씩 좁쌀 미음으로 調下.

⑧ 삼인방 모려산, 하모려, 황기, 마황근, 등분작말하여 5전씩 부소맥 100粒과 同煎服.

⑨ 류취 · 方에 모려, 방풍, 백출 등분작말하여 2전씩 酒조복.

⑩ 通治方 육미 십전대보탕, 인삼양영탕, 사물 加 황백, 선학초 8, 홍초 4전, 煎服 - 출전미상

(3) 自汗, 도한 분별없는 大汗처방.

근래 중의학계출간문헌에는 자한 도한을 구분하려 하지 않는 大汗처방이 많이 나와 있기에 전개해 본다.

① 清熱固表湯(온병론)

a 생석고, 부소맥, 나도근 4, 지골피 1.8, 지모 1 5전, 청열고표, 養陰止汗.

b 內熱表下和로 오는 자한 도한에

② 升降湯(의학충정참서록)

a 생황기 2, 지모, 시호 1 2, 길경, 승마 0.8전.

b. 익기고표, 升提陽氣

c 宗氣下陷 氣短 胸悶 心悸, 정충, 미열, 오한, 설태박백, 맥침세한, 자한 도한에

d 기허가 심하면 인삼, 산수유 1 8 加 흉민이 심하면 팔루 각 삼백 加 심계 실민이면 원지 산조인을 加함

③ 모려산(화제국방)

a 하모려, 부소맥 1~1.5, 마황근, 황기 2, 고표지한, 익기렴음.

b 氣短권태, 心悸, 易驚, 각종 만성질병에서 오는 도한과 표허자한에

c. 屬陽虛 加 백출, 부자. 氣虛 加 인삼, 황기, 음허.

④ 당귀육황탕(난실비장)

a. 당귀 생지황, 숙지황, 황련, 황금, 황백 등분 황기는 배량으로

b 자음清血, 고표지한.

c 음허화왕에서 오는 도한, 발열, 面赤口乾 心煩唇燥 便難尿赤, 설홍, 맥삭세

d. 음허도한 加 마황근, 부소맥, 潮熱咽乾에 지모, 귀관, 養陰瀉火力이 강하니 비위허, 변당에 不可腹.

⑤ 保元湯(박애심감)

- a. 인삼, 황기 1.6, 육계, 구감초 0.8, 干五
- b. 익기고표.
- c. 허로 원기부족에 - 정신권태, 氣短自汗 微惡寒.
- d. 맥허대 - 신경쇠약에.

⑥ 固表斂汗湯(황문동의안)

- a. 인삼 1.6, 백출, 백작약 1.2, 부소맥, 나도근, 하용골 4, 모과, 진피, 구감초 0.8, 계지 0.4, 棗五
- b. 익기건비 고표렴한.
- c. 기혈具虛, 비위허약에서 오는 자한에.

⑦ 補汗方(광서황제의안선방)

- a. 모려粉, 고백반 4전, 細末하여 씻은 뒤에 바름
- b. 수렴固澁
- c. 허한, 음낭潮汗, 습진 피부미란에

⑧ 옥병풍산(세의득효방)

- a. 황기 20, 백출 18, 방풍 8전, 爲末 2~3전 1일 2服
- b. 익기고표지한, 표허자한, 기허 表衛不 固 易感風邪 表虛이환감모, 자한오풍, 감기갈 결립 面色光白 설담, 맥부완
- c. 표허외감, 오풍, 자한加 계지 배량 자한부지 加 모려, 부소맥, 오미자 만성비염, 과민성비염 加 신이화, 창이자, 백지.

⑨ 柏子仁湯(절강, 주명도)

- a. 하모려 2.5, 백자인, 인삼, 부소맥 2, 백출, 오미자, 마황근 1.5, 간반하 0.8, 棗五
- b. 두운, 이명, 심계 변당, 四肢疲乏, 胃納結滯. 도한 설태박, 舌炎紅, 맥세약, 자율신경 기능 문란에
- c. 心肺陰虛, 營衛不守하여 衛氣不固.

⑩ 寧心安神, 火旺 加 황련 0.2, 황금 0.8, 비허 변당 加 산약 4, 감실 1.3, 자한이 심하면 加 황기 2, 방풍 0.3, 양허가 심하면 加 부자 0.4.

- a. 滋陰斂汗, 固陽衛表

□ 학 술

⑪ 加味溫膽湯

a 법반하, 복령 2, 죽여, 지각, 진피 1.2, 감초 0.2전

b 多汗 嗜睡, 사지무력, 食少, 맥침, 舌반嫩, 태박백, 자율신경기능문란

c 痰濁內結 - 神明혼란 除痰開結, 解鬱定志, 心悸 加 황정, 원지, 汗多 加 백작약, 복황기, 腹瀉 加 방풍, 시호, 변비 加 천련자, 육종용, 불면 加 단삼, 황정, 嗜睡 加 창포 두통 加 천궁, 만형자, 현운 加 백출 택사 易驚 加 용골, 모려, 四肢麻木 加 계혈등, 천궁, 心痛 加 단삼, 천궁, 食少腹脹 加 산사, 천련자, 咳痰爲喘 加 백부, 자원, 정력자

⑫ 온담탕 습 시호역간산가감 方(산동 전병염)

a 과루, 창포 2, 죽여 1 8, 시호, 향부, 반하, 원지, 작약, 천궁, 진피, 복령, 섬백 1 5, 지실 1.3

b 하품, 기지개후 콧물, 눈물 胸煩, 驚悸失眠, 嘔 食少, 少氣, 臥言, 태박황이, 맥현활 肝鬱氣滯, 鬱而化熱, 痰濕內生, 心神內擾, 舒肝解鬱, 和胃化痰, 清養心神 失面未解 加 단삼 3, 산조인 2, 치자 105

⑬ 扶陽斂汗方

a 인삼, 계원육, 생황기 8, 제부자 4, 금앵자 3 5, 계혈등 23, 생지황, 파극, 육종용, 산사, 오미자 1 8, 백작약 1.2, 계지 0 4

b 心悸氣急 多汗如流, 肢冷身寒 면색창백, 唇清 大汗陷陽, 扶陽斂汗.

(4) 黃汗

가 諸家の 황한론

① 直指 황한의 병은 몸이 부종 발열하며 땀이 남으로渴하고 땀이 나면 옷을 적셔 빛이 황백즙과 같으니 이를 황한이라 한다.

② 금궤요략수기병맥병치 云 “黃汗 爲病, 身體腫 發熱汗出而渴 狀如風水 汗霑衣色 正黃如柏汁”

③ 출전미상

“汗出傷濕 濕熱交爭 或濕熱鬱阻 蕉蒸肝膽 膽液疏泄異常 或脾胃積熱 濕熱蕉蒸 而成黃汗”

④ 의학심오 云 “出汗染衣 名曰黃汗 皆陽黃之類”

⑤ 병인백치황달론 云 “黃汗之證 眼自黃 面皮黃 汗出染衣 如黃栢汁”라 하고 황달과 관련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눈다

⑥ 의종금감云 “황한 微腫은 모두 습열에 속한다”

나 황한의 辨因論治

① 營衛壅閉황한

a 증상 · 黃柏汁狀汗, 발열, 身腫困重, 皮中如有蟲行, 口渴, 소변불리, 설태백 맥침.

b. 원인 · 몸이 뜨거울 때 비를 맞거나 찬물로 샤워하면 肌膚鬱閉하여 영위가 옹폐하니 熱水上搏한다 영위옹폐하니 발열부종 신체곤중 蟲行感 水氣內停하니, 기가 化濕하지 못해 진액이 상승하지 못해 口渴 방광 氣化失調로 뇨량감소

c 치법 宜通鬱滯 調和榮衛 去表濕

d 처방 : 황기 작약 계지 고주탕 - 황기 5錢 작약 계지 각3錢 고주 1升 水7升을 혼합하여 끓여서 3升을 취해 每服 1升

② 濕熱온積황한

a 증상 · 汗出漢色 발열 身微腫, 尿赤 脇痛 식욕부진 설태황이 맥현활

b 원인 · 濕熱邪를 '外感' 하거나 內熱이 장기간 鬱而化熱하여 濕熱이 온積되어 脾胃을 혼증함으로

c. 치법 清熱利濕 爲榮衛通

d 처방 옥병풍산가감

③ 濕熱素盛한데 外感하여 肌表에 습열이 교차하여 즈이 땀을 따라 나가 피부를 적셔서 황한 습열이 中阻하여 口渴不欲飲 맥침활 태황이

a 치법 청열리습

b 처방 인진오령산

인진- 청열리습회황 사령산 - 散化濕利水 계지 - 面陽 助花濕功 口乾引飲하면 熱重干濕한 것이니 去 계지. 습열이 淸하면 황한은 필요 없어진다

(5) 戰汗

가 諸家の 戰寒論

① 상한변태양명맥증병치에 태양병未解에 음양맥이 모두 停하면 반드시 먼저 振慄하고 汗出而解한다

② 경약전서예

凡傷汗欲解 將汗之時 若其正氣內實 邪不能與之爭 汗亦不作戰 小謂不戰 應知不應 若其人

■ 학 술

本虛 邪與正爭 微者爲振 甚者爲戰 正勝邪則戰而汗解

③ 오우가의 온역론 엽천사의 외감온열론에 “戰汗은 病情의 變化와 예후관찰자료이다”

④ 엽씨 “만약 그 邪가 始終 氣分에 머물면 戰汗하니 透邪시켜라. 마땅히 益胃하고 邪와 汗으로 하여금 열이 주리를 열어서 邪가 汗을 좇아 나가게 하라”

⑤ 발열환자에게서 보이며 정기가 병사와 싸워 配邪外出하는 일종의 방어조치, 전신이 떨린 후 땀이 나는 것이 보통

⑥ 外邪가 在氣分하면 발열구갈 調熱不收 正邪交爭하니 戰慄하고 正氣가 邪를 이긴 즉 汗出而解 脈靜身涼渴自然 맥삭 부 미삭하고 설태가 박황한 것은 氣分有熱이다

⑦ 戰汗자체를 치료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原發病情을 치료해야 한다.

나 전한의 辨因方治

① 太陽病傷寒欲解 전한

a. 증상 오한 발열 관절통 설태 박백 맥부삭 重接無力

b. 원인 . 풍한이 肌表를 침범하여 正邪交爭

× 전한 후 병이 스스로 나오니 꼭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으니 발한이 충분치 않으면 表症未解하여 再次寒戰하니 치료한다.

c. 치법 調和營衛 解肌

d. 처방 계지탕

② 疫留氣分 欲解전한

a. 증상 고열 오한 오열 번갈 욱음 설태황 맥홍대

b. 원인 : 溫疫之邪가 表에서 入裏 氣分에 머물러 戰汗후에도 身熱未解이면 邪氣가 덜 풀림이니 汗出시켜 풀어야 한다. 그러나 得汗 할 수 없으면 시호청조탕으로 화하라 또 戰만 있고 汗出없어 厥逆하면 死함 이는 正氣脫하여 邪에 不勝한 것이기 때문

c. 치법 : 解肌養陰

d. 처방 시호청조탕 (시호 황금 진피 천화분 지모 干棗) - 온역론보류

(6) 經汗(汗大泄 漏汗 汗出不可止)

가 諸家の 絶汗論

① 入向에 땀이 많아 그치지 않거나 또 땀이 안 나오는 증을 망양이라 한다. 만일 心比塞하고 胞頰하고 面淸筋攣하면 난치요 面色莫 手足溫이면 易治

② 땀이 안 그치면 眞陽이 망함으로 亡陽이라 하고 身冷痺寒이 된다.

③ 발한과다하면 陽虛해서 不固하여 津液이 脫亡하면 脈의 屈伸이 불리해 진다 四肢抱急 하면 제지부자탕을 써라

④ 汗多亡陽에 不汗이면 도씨再造散을 쓴다

⑤ 소문거통론 영추五禁에 汗大泄 經汗 脫汗 漏汗 汗出不可止라 기록

⑥ 류증환인서에 虛汗不止로 기록

⑦ 세의특효방에 汗不止로 기록

⑧ 잡병원류서축에 汗大泄로 기록

× 위급단계에 보이는 대량발한, 기름땀이 멎지 않는 상태 임상에서는 절한과 유사?

× 허탈이 完解해도 後에 근본적인 병을 후속치료 해야 한다

나 절한의 辨因방치

① 氣陰欲脫 절한

a 증상 뜨겁고 끈끈한 땀 大泄 身熱 手足溫 口渴欲冷飲 호흡氣粗 권태 무력 唇舌 乾紅 맥허, 삭, 세, 무력

b 원인 중증고열발한으로 극심한 구토 하리 대출혈 만성병의 소모로 陰脫하여 양기가 의지할 곳 없이 散越하여 亡失하고 다시 음액이 고갈하는 악순환 계속. 음양片盛片衰 영위 실조로 주리가 不閉하여

c 치법 益氣固脫 滋陰生津

d. 처방 생맥산 加 산수유

② 陽氣欲越절한

a. 증상 구슬땀 大量 사지궤냉 神萎靡 面無華 호흡미약 欲臥 口渴欲熱飲 無力 설운 맥 미삭, 부, 흥, 욱절

b. 원인 : 久病重病으로 양기소모 - 수렴을 못해 陰陽相離 陽氣散越 - 亡陽

c. 처방 삼부탕, 용골, 모려

③ 卒急絶汗

a 증상 병정위급시 전신 大汗淋漓 汗出如油 肢冷 맥미, 무력, 欲絶, 호흡미약 神言不清 舌倦無津

b 원인 : 急重病으로 精虧 陰液裏渴 陽氣暴脫 陰陽亡脫 - 亡陰陽

c 치법 익기고탈 回陽斂陰

d 처방 생맥산 加부자를 급히 다려 자주 먹여라 약의 양은 적으나 효과 있고 용골 모려 마황근을 수증 가감하라

▣ 학 술

- × 청낭결에 汗亦如雨 - 亡陽之慮 - 황기 3분 당귀2분 맥문1분 오미자 3전, 죽염1전 인삼5전
- × 출전미상- 안정시에도 汗出量多 如雨 - 裏熱盛 - 肝虛하여 土不生金하며, 氣虛하여 不能外衛 陰虛하여 不能配收하면 大汗 - 爲肝益氣 雙補氣血하라

(7) 紅汗(血汗)

가. 諸家の 紅汗論 辨因方治

- ① 내경에 소음이 이르는 곳에 血汗이 생긴다
- ② 상한론에 大陽表實 不得汗 陽氣上盛而致歟
- ③ 唐容川혈증론에 陽乘陰而外泄者 發爲皮膚血汗矣
- ④ 하간 - 담이 열을 받으면 피가 妄行하여 혈한이 되니 정명산을 쓴다
주사 한수석 사향 等分作末 新水調下
- ⑤ 삼인 · 무병한 사람이 땀이 나서 옷을 적시고 심하면 붉게 물들이는 것을 흥한혈한이라 하며 過喜傷心하여 散氣하고 血이 氣를 좇아 운행하니 황기건중탕을 묘향산과 곁해 쓰고 (묘향산은 金銀器에 달인 맥문동탕으로 먹는다) 임부혈한에는 진草汁方이 좋다
- ⑥ 津草汁方 진초를 取汁2升하여 醋 2分을 넣고 끓여 공심복하라.
- ⑦ 본초 고슴도치 껍질을 燒存性하여 미음으로 調下하고 고기는 삶아 먹여라
- ⑧ 중의 하하송 寒孔삼투성 출혈
 - 황기 대추 생지황 4 선학초 인삼 마황근2 목단피 한련초 증려炭 1 7, 황금, 황백 1 5錢을 30~40일 복용후 가감 팔진탕으로 조리
 - 서각지황탕가미방 서각 차전자 생지황2 적작약 단피 황금 용담 연교 괴화 1.5 황련 삼칠근 1 3전을 5일 복용후 去괴화 삼칠분 加자초 1.5錢 6일 복용

(8) 臭汗(腋汗 脇汗) 의림승묵 장씨통감 류증치제에 脇汗기록

- × 兩腋에서 脇下에 걸쳐 나오는 땀 땀과 함께 전신에 臭氣발산 옷을 바뀌도 씻어도 臭出

가 肝膽內熱 액한 - 허증

- ① 증상 腋下無取汗出 多夢易驚 허번불면 頭暈 무력감 面無華 牛后湖熱 오심번열 口乾 咽燥 설홍 건 설태少 맥현 세삭
- ② 원인 만성병으로 소모과다 성욕과다로 정혈고갈 간음간혈이 모자라서 肝絡을 못다스림
- ③ 치법 滋陰柔肝清熱
- ④ 처방 육미원 일관전가감을 쓰고 牡礬丹을 腋下에 문지른다.

나 肝膽濕熱液汗 - 실증

① 증상 · 臭汗 胸悶 식욕부진 口苦粘이 口渴不欲飲 身中體倦 尿短赤莫 설태황이 맥현삭

② 원인 습열이 간담에 울결하여 疏泄이 잘 안돼 經脈으로 外泄

③ 치법 : 청열리습

④ 처방 · 용담사간탕 - 모반단을 脇下에 문지르라

다 腋取에 대하여

액취가 심한 것은 습열을결에 의하거나 유전적 소인이 대부분 간담습열에 의한 것은 변증논치가 가능하다. 유전적인 것은 수술해야 한다

• 九香飲 · 氣약으로 少佐 香으로 行氣 化濕熱하라.

(9) 柔汗(冷汗 油汗 粘汗)

다른 기록을 만나 볼 수 없었고 絶汗과 같이 취급한 기록을 의지할 수 밖에 없다

(10) 部分汗(局所多汗)

가. 頭汗

A 諸家の 頭汗論

① 明理云 머리는 三陽이 모이는 곳이라 邪氣가 諸陽을 쳐서 津液이 위로 注溱하면 머리에 땀이 난다

② 本事云 머리는 三陽이 모이는 곳이라 대개 三陰脈이 가슴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법인데 두한이 나는 것은 대체로 陽이 허한 탓이다 그러므로 땀이 나는 것은 陽이요 陰은 땀을 내지 못한다.

③ 海장云 두한이 나서 목에 그치고 돌아가는 증은 혈증이다 이마 위에 땀이 치우치면 머리에 陽이 모이는 곳이므로 열기가 훈증하여 땀이 나는 것이다 턱은 腎에 속하고 이마는 心에 속하니 삼초화가 腎水를 고갈시키고 마른 나머지 수분이 위로 逼迫해서 心에 침입하니 두한이 되고 이마 위가 많다

④ 동의云 습한 사람은 頭額에 땀이 많다. 陽明胃實이면 두한이 나고 수결흉에도 두한이 난다.

⑤ 상한변태영병맥증치云 但頭汗出離頸而還 정상인에게 많다 이를테면 식사중에 나가거나 어린이에게서 잘 때 나는 것은 병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 학 술

⑥ 통영 장수당 김준길 - 多濕 胃實 胸水者에 많다 대부분 음허에 속하고 반하 적복령 굴피2 인삼 천궁 백출1錢에 干5를 쓴다.

B. 두한의 辨因方治

① 濕熱두한

a 증상 頭片汗 尿不利 身目發黃 오한발열 설태황이 맥연삭.

b 원인 : 濕邪가 鬱而化熱 습열혼증하여 布散을 못해 經을 따라 上越하여 津液을 밖으로 밀어내어 頭面 額汗.

濕이 방광을 阻塞하여 分利失調하니 尿量은 감소 습열이 간담을 혼증하니 담즙이 넘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습열이 內阻하여 영위失調하니 오한발열 맥연가 설태황.

c. 치법 : 청열리습

d 처방 · 인진오령산

② 陽氣부족두한

a. 증상 頭面汗多 面無華 肢冷 氣短 畏寒 설담 맥허약.

b. 원인 병후, 산후, 노인 양기부족으로 주리의 固澁이 不實해서 두면부근 外泄 양기부족이면 음혈도 부족해져서 面無華 外表로 布散이 안돼 肢冷 畏寒 기단 권태무력 설담 맥허약

c 치법 溫陽益氣, 固表斂陰

d. 처방 : 계부탕 加 홍삼 용골 모려

③ 溢陽 - 식사중에만 두면한출如流

a 원인 위열

b 출전미상 . 가미쌍화탕 - 백작약주초 밀구 황기 당귀 천궁 생진지황 계지 오매 감초 소존성 소맥 0.5錢 干五棗二.

c. 일금방 因胃熱腎火 - 目昏 耳痛 - 滋陰清肺

천문동2근 맥문동 생지황 원삼1근 산조인 반근 오매4분 爲末 매일 1분 백탕복 3개월 止汗湯 숙지황2근 상엽1근 맥문동6분 오미자3분 밀환 매일 0.5~1분 복용 1개월.

④ 출전미상 酒風 漏風이라고도 하고 방풍25 백출12 모려2 爲細末2錢 日 3회 복용

⑤ 출전미상 溫加頭額汗出 因陽明胃實 水結胸

二甘湯(동의보감) 백호탕

생감초 구감초 오미자 오매 合5錢 煎服.

⑥ 虛實分別하는 경우

a. 실증 · 습열에 의한 것이 많고 上焦鬱結 煩渴脈數은 淸上焦鬱結 散鬱結로 사심탕 加 상엽 목통

b. 허증 : 양기부족에 의한 것이 많고 心氣大虛, 煩渴脈數, 不能攝津液이니.

c. 補益心肺하기 위해.

d. 생맥산 加 부소맥 대추.

e. 그 밖에 관격 수결홍 소양병에서도 오니 노인의 호흡곤란이나 重症陽脫에서 오는 위 급한 경우도 있다

f. 중증양탈이면 補益元氣 滋陽津液하다

나. 面汗

① 두액한과 비슷한 부류

② 업무에 몰몰허거나 손님접대 식사중에 얼굴 손발까지 흘러 내리는 경우

③ 청낭결方 · 황기황기2분 갈근1분 형개 방풍 3전 煎水3 燻 湯洗하다.

× 羊鬚는 신경절제술 - 연세의대 홍부외과 이두연박사

面汗 홍추 1번에서 교감신경절제

팔뚝多汗 홍추 2번에서 교감신경절제

다. 頸汗

因太陽經氣不和 頸項片背易汗出 口咽乾 맥완 - 갈근탕 加 천화분 황금

라 腋汗

냄새없는 경우 냄새있는 경우는 臭汗항에서.

因濕熱流注於心經

心陽不足 · 보원탕 加 부자 오미자

心腎兩虛 : 우귀환으로 補陽滋陰 助陽心腎.

마. 手足汗

手足에서만 汗出. 상한명리론에 「胃主四肢 手足汗出者 陽明之證也」

통영 장수당 김준길 「진액이 위에서 滲出 하는 것이니 補陰補陽利尿去痰하라」

× 열병과정에서 燥屎內結되면 手足점점 汗出하는것은 陽明腑의 主증상이 아니니 여기서는 제외

① 비위습열수족한

a. 증상 : 수족한 胸脘비悶 不思음식 身重附因 尿赤短 실타황이 맥연 삭 연 활

■ 학 술

b 원인 - 위는 수납 운화 사지를 주관하는데 脾胃가 勞傷하면 濕이 생겨 습사의 비위침습으로 비위阻滯하여 濕鬱化熱하고 습열이 위를 훈증하여 胃中の 진액을 사지의 表로 外泄시킴.

상한명리론에 「手足汗出者 爲熱聚于胃 是津液之 傍達也」

습사가 중초를 막아 運化失調되면 흉완비민 불사음식 신중체곤 습열이 內鬱하면 방광기능실조로 尿短赤 상초를 훈증하면 설태황이 맥연삭

c 치법 : 清熱燥濕 燥脾和濕 暢肌氣

d 처방 연박음 위령탕 가감 광박궁하탕

② 비위기허수족한

a. 증상 수족한출 권태무력 氣丹瀨言 肢冷 食少 便당 설태담백 맥허약.

b 원인 : 음식부절제 과로로 비위기가 손상되어 水濕配布失調하여 津液 傍注 비위는 사지를 다스리는데 비위기허가 脾陽虛衰에 이르면 陽氣가 외부를 溫照하지 못해 四肢冷 面黃하고 收納 腐熟

運化가 안되니 食少 便당 설담 백허약

c 치법 健脾補氣

d 처방 삼령백출산 가감

③ 비위음허수족한

a. 증상 수족한 咽燥口乾(夜甚) 식욕부진 飲不欲食 乾嘔 吃嘔 便逆 설홍 소태 맥세삭

b 원인 · 열병으로 인한 傷陰 辛熱厚味 과식으로 熱傷하고 음허내열이 되며 진액을 外泄시켜 진액부족으로 口乾 비위기허가 소화기능을 실조하게하여 飲不欲食하고 飢구 吃逆 便硬 설홍 소태 맥세삭

c 치법 滋養胃陰

d 처방 사삼맥문동탕 가감

④ 비위허약 陰寒內盛 腸道寒凝冷結 - 中氣滯無力攝收 - 冷汗外溢手足 - 溫中脾胃 - 부자이중탕

⑤ 胃部積熱 陽明熱盛 - 津液收傷 - 이감탕 백호탕 대시호탕도 邪熱을 瀉下

⑥ 心腎陰虛湯盛 · 心腎內虛 衛氣實攝으로 手足多汗 - 補心腎하라

⑦ 失血久病 소모음혈 心肝陰虛 · 手足多汗不止 - 滋補陰血 - 당귀보혈탕 계지탕

⑧ 水背屬肺 · 經熱 - 肺陰失斂 - 手背汗出 - 育肺陰 - 斂肺氣 清 伏熱

⑨ 겨울에도 흐를 정도의 극심한 수족다한증 피로 요통 위장장애 - 신허 - 補陰湯 - 당귀

복령 1전 인삼 백작약 숙지황 건지황 진피 우슬 파고지 두충 0 7전 회향지모 황백 감초 0.3 전

⑩ 장기간지속하여 氣血陽虛하면 調補氣血

× 外治

a 일금방 - 황기2分 갈근 1分 형개 방풍 3錢 煎水로 燻蒸하고 溫煎水로 찌되 매일 약물을 바꾼다

b 미상 백반 갈근 煎水로 外洗

바 上身汗

① 因濕熱과 瘀血

② 清濕熱 活血化瘀

③ 삼인탕 加 활혈약

사. 心胸汗(心汗)

① 因사려과다 心脾兩虛 - 귀비탕 복령 감초탕

② 胸背汗亦 汗出而不渴 - 영계출감탕

③ 前胸部發汗

류증치재한증론에 「當心一片 津津自汗 名心汗」

④ 통영 장수당 김준길 : 감정이 북받쳐 심장부위발한 - 散熱解鬱하다

⑤ 心脾氣虛 흥한

a 증상 前胸汗出 안색 창백 氣短乏力 心悸健忘 食欲부진 설淡嫩 맥허약

b 원인 사려과도 음식부절제 과로로 心脾氣積하여 胸陽不振 固表失常 津液外泄

c 치법 . 補益心脾 固表止汗

d 귀비탕 加 용골 모려

⑥ 心腎陰虛 흥한

a 증상 前胸汗 초조 불면 心悸 건망 頭暈 耳鳴 腰膝산軟 多夢 遺精 骨蒸潮熱 尿短赤 설홍少苔 맥세삭

b 원인 . 음허 血少체질 만성병으로 傷陰 출혈과다 사려과도 - 心腎陰虛 陽氣不斂 - 虛熱 - 津液外泄

c 치법 滋補心腎

d 처방 찬왕보심단, 육미환가감

아. 陰部汗

■ 학 술

- ① 因腎虛有濕 肝經濕熱 · 汗多 粘조臭 - 익기충명탕 培황백 減 오미자.
- ② 因下焦濕熱 陽不固 津液子漏 - 寒多清冷 익기충명탕에 오미자 重用 황백은 減
- ③ 因片熱盛 - 용담사간탕
- ④ 因腎虛陽裏 - 국방안신환 소안신환을 소금간한 된장국으로 먹이라(특효)
- ⑤ 因음낭濕傷
 - a. 大삼元 · 큰 마늘을 거피도란하여 담두시末로 오자대로 제환하여 대추 등심 煎湯로 공복에 30丸 복용(특효).
 - b. 주침초 사상자 백반 목은 장 煎水로 환처를 씻는다(특효)
 - c. 밀타승 蛤粉 細末로 바름(단심)
 - d. 노감석 2.5 황련 오배자 1.25錢을 細末하여 노봉방 대복피 煎水로 씻은 뒤 바름(적지)

자. 下肢汗

- ① 간신부족하지한 : 습열하초적체 - 活以甘淡. 滲濕清熱除熱 - 甘寒養陰
- ② 간신기혈허하지한 습열하초적체 - 治以補益肝腎 清熱燥濕 - 삼묘산가미.
- ③ 심비兩虛하지한 : 기혈어와 어혈 - 하지궤냉 - 補益心脾 益氣活血.
- ④ 음허하지한 溫陽通經止汗 귀비탕 습 사역탕

차. 片汗(汗出偏沮)

소문생기통천론 「汗出偏沮 使人偏枯」

중의임증비요 「좌우半身出汗은 氣血不固에 의한 것이다」

× 장부기능의 쇠퇴로 오는 경우가 많고 중풍이 뒤따라 오는 수가 있음

① 기혈兩虛 편한

a 증상 반신발한 少氣 懶言 권태무력 面無華 心悸 정충 식욕부진 頭暈 目眩 手足麻 설
담태백 맥세약.

b 원인 심신과로 久病虛弱 陰陽

不調 출혈과다로 기혈이 부족하거나 기혈이 고루 周行하지 못해서

c 치법 氣血雙補 益氣養榮 助陽固衛

d. 처방 : 인삼양영탕 팔진탕 십전대보탕 心脾氣虛에는 귀비탕가감

② 寒濕痺阻 편한

a 증상 · 片汗 筋絏痛 關節痠 장애 肢體沈重 轉側不能 설태백이 맥연지

b. 원인 · 한습이 반신의 경락을 阻塞 기혈 운행이 한쪽에 잘 안되서

c. 치법 溫散寒濕 活血痛絡

d. 처방 : 건痺湯 加 세신 법제 오두와 소활락단병용.

③ 영위불화 편한

a. 증상 · 片汗 발열 두통 오풍 설태백운 백완약

b. 원인 · 風寒外感 과로로 氣血失調 영위불화 외감은 발열 두통 오풍이 따르고 내상에 의한것은 편한 筋弛 운동장애가 따름

c. 치법 · 調和영위

d. 처방 : 계지탕가감

④ 기혈영위 失調 편한 · 간염이나 기혈순환부조 - 반신불수 가능성 있음

익기양영 · 십전대보탕 황기 계지 오물탕. 조화기혈 도홍사물탕

⑤ 氣血瘀片阻 편한 · 익기활혈 - 보양환오탕 加 황기 배탕

⑥ 영위氣虛血瘀 편한 : 영위不調片阻 - 익기 養血 清熱通絡 - 당귀육황탕가미

⑦ 冒暑片阻 편한

溫經通陽 益氣陽血 行滯痛絡 當귀사역탕가미

⑧ 脈絡瘀阻 편한 삼초不通 - 시호가 용골 모려탕

⑨ 血虛肝熱 편한 단치소요산

⑩ 外風傷 편한 : 玄部不通片阻 - 통규화활혈탕

⑪ 脈火鬱結 편한 肝木失調 - 분돈탕

⑫ 양명열盛重 편한 : 건실한 체구에 - 중풍전조?

氣血陰陽失調로 邪熱이 片汗하게 맥홍대 - 陽明邪熱을 瀉하라 경하면 - 백호탕 가감 승기탕류

胃火盛 고열 번조 尿短赤 片身大汗 口渴 多飲 便結 - 백호탕 승 승기탕.

⑬ 간경鬱熱 편한 간염이나 월경부조로 片汗 兩脇痛 頭痛 目澁 潮熱

觀骨上赤 口苦咽乾 月經服脹 滋陰清熱 養血舒肝 단치소요가미

⑭ 陰虛內熱 편한 久病허약 肝腎陰虛.

편한 虛臥上炎 腰膝軟 頭目眩暈 耳鳴 耳聾 도한 遺精. 滋陰清熱 六味元가감

⑮ 肝鬱化火 편한 발열 협통 번조 이롱 구건 골증조열 虛火致痛 화를 잘낸다

滋水清肝飲.

⑯ 陽氣虧虛 편한 · 양기부족 陰寒壅盛 陰陽 不調 百色蒼백 手足冷 오한 喜溫 복통 便軟

□ 학 술

清涕. 溫陽益氣. 계부이중탕가미.

⑰ 중풍片탄없이 片汗 계지탕 加 사과락 백간잠 통초.

⑱ 계지2 황기 백작약 방풍 15 인삼 백출 당귀 감초1 진피 시호 승마 건지황 맥문동 택사 0 5錢

(II) 無汗

가 諸家の 無汗論

× 땀이 나와야 할 경우에도 안 나오는 경우 春夏에는 陽氣가 疏泄하는 계절임으로 氣血이 表로 향해 땀이 나고 秋冬은 陽氣가 潛藏하여 氣血이 裏로 향하니 땀이 적고 無汗함이 순리이다. 그러나 外邪侵入으로 主裏開閉기능 失調로 나와야 될 때 안나오는 현상을 말함

소문맥요정미론 「陽氣有餘身熱無汗 陰氣有餘 則無汗而寒」

영추 云 「奪血이 되면 無汗 奪汗이 되면 無血」

단계 曰 「盛夏에 목욕하고 음식을 먹어도 無汗하면 表實이고 表實하면 땀이 안난다」

직지 云 「三陽이 實하고 三陰이 虛하면 땀이 안나오고 三陰이 實하고 三陽이 虛하면 虛汗이 그치지 않는다」

동원 曰 「眞氣耗損 胃中水盛하면 汗出不止하고 胃中에 진기가 渴하면 陰火가 裏해서 無汗이고 燥하면 陰陽具裏한 것이니 四時無汗이면 형체를 지탱하지 못한다」

동의 云 「상한음증에는 땀이 없다」

× 임상적으로는 表裏 兩症이 다 있으며 虛實寒熱을 辨別하여야 하며 억지로 發汗시켜서 正氣를 손상하여 쇼크에 이르지 않게 조심한다

나. 無汗의 辨因方治

① 풍한表實無汗

a. 증상. 무한 오한 발열 두통 身痛 痺閉 경聲 재채기 流常 喉痒 해수 설태박백 맥부 긴

b. 원인 풍한사가 入肌表 - 衛陽 鬱閉 상한명리론 云 「寒邪中經 膝裏緻密 津液內滲則無汗」

c. 치법 · 身溫解表發汗

d. 처방 마황탕

③ 表寒裏熱無汗

a. 증상 무한 발열 오한 肢體疼痛 痺閉 사聲 번조 구갈 咽痛 해수 痰黃 尿赤 변비 설태 박백황 맥부삭.

풍한束表징후 - 오한 발열 무한 신체동통 리열징후 - 체내열감 구갈 인통 설태박황

b. 원인 . 熱盛 內熱內은한 상태에서 風寒邪가 침입하여 內熱이 閉鬱되어 傷寒表邪가 남아 있을 때 外邪入裏 하여 化熱해도 생김.

c. 치법 疏散風寒 清裏熱

d. 처방· 총두시길경탕 - 신선한 총백 35매 길경 박하 1~15 연교 1~2 초 치자 2~3 두시 3~5 생감초 0.6~0.8 신선한 죽엽 30片. 표증이 심하면 대청룡탕

③ 寒濕束表무한

a. 증상 무한 頭脹如裹 肢體沈重 관절통 畏寒 미열 오후에 심함 설태백이 맥부지

b. 원인 發汗 후에 찬바람 쐬거나 습냉이 있는 환경 때문에 入肌表.

c. 치법: 散汗去濕

d. 처방 마행의감탕 강활승습탕

④ 중의 광제우 무한론

a. 증상 무한 天寒睡眠不佳. 天熱雖 睡眠良好 神被과風 納少無味 數年面不華 舌痰紅 태백황 맥침완

b. 원인 早年 풍습병.

한습침입 - 肯陽折損 - 不能溫煦 - 肌衰진無力 - 故汗達表不得汗泄

c. 치법 - 助陽透表

d. 처방 - 마황부자세신탕

× 마황 1.3 포부자 1.5 세신 0.5 1일 2침복 3일후 少汗出周身顔感舒活後 7일 추가 복용으로 완치

(2) 소아 汗

소아의 신체적특징이 純陽에 가깝고 장부의 발달이 미숙하여 맥증호가인과 問診이 어려워 어른의 경우와 구분하여 취급함이 좋을 듯 하여도 별도로 취급해 본다

가 中醫 주금선의 소아한증론 요약

① 치법과 적용사례

a. 일반적인 경우 固表 - 清熱滋陰

b. 허증의 경우 · 補益 - 表裏氣血 陰陽 - 臟腑의 특성 분별하여 收斂 - 脫水방지.

c. 실증의 경우 : 疏利 - 邪鬱 食滯 濕阻 血이 表裏 어떤 臟腑인지 분별하여

나. 변인방치

▣ 학 술

① 虛汗 · 閉藏기능 失調로 진액外泄.

a 表氣虛 전신, 혹 상반신 多汗, 畏寒 감기잘걸림 선천부족 脾汗 面白體藥 食少 便軟, 脣舌痰白 - 益多固表止汗 - 모려산 혹 微邪가 있으면 옥병풍산.

b 裏氣虛 : 汗量多 動則甚

c 心氣虛 자한 머리 이마 심홍 수족 심 汗多 心悸 氣弱 面唇淡白 설담 맥세 - 益多榮心 - 생맥산, 단삼탕

d 腎氣虛 流不止, 動則甚, 氣短, 膝冷, 活淡 齒痕, 맥세허무력. 亡陽→亡陰단계- 溫腎 斂汗 - 계지가부자탕, 작약 감초 부자탕.

e 心腎兩氣虛 沒汗如流, 肢冷, 맥미약 - 급히 回陽求逆하라 - 삼부용모구역탕 加 산수유.

f 폐비기허 건비익기 보폐렴한 - 황기고진탕

• 폐허 : 面白 咳 氣藥 虛喘 多汗에 치우치면 加 백합 오미자 白果

• 비허 · 面黃, 食少, 便軟에 치우치면 加복령, 진피, 가자.

황기고진탕 - 황기, 인삼, 백출, 구감초, 당귀, 맥문동.

g 음혈허 도한, 골증조열, 수족심열 身수口乾, 舌乾, 맥세삭, 열병후 결행성 기침

• 심혈부족 심음휴손에 치우쳐서 불면 심계인후건조하면 滋陰養血 衄汗寧心하기위해 - 생맥산 산조인탕 귀비탕.

• 폐음허에 치우치면 久咳 氣藥 咳血 痰血하나 養陰宿肺하기위해 백합고금탕 지골피음

• 간신음허에 치우치면 頭暈瞑目, 腰산 耳鳴하나 滋養肝腎하기위해 미맥지황환

• 음허화왕에 치우치면 潮熱 盜汗이 심하니 陽陰清火하기위해 진교별갑산, 당귀육황탕.

② 實汗 : 邪實瘀阻 內熱煎迫 營陰阻塞으로 表鬱 - 풍, 한, 서, 습이 침입하여 영위 失調 - 自汗해도 충분히 못나와서 表鬱 - 畏風寒 鼻塞 流涕 微咳 불규칙한 발열.

• 표을

- 풍한이면 설태박백, 疏達 - 계지탕

- 비폐부족이면 계지탕 加 옥병풍.

- 濕鬱近表, 설태백후, 면황 神暗 腹脹湯이면 - 삼인탕

- 濕鬱化熱에는 - 감로소독단.

• 裏熱 · 열이 양명경에 들어가 胃에 食滯裏熱燻蒸 - 汗如流 - 전신, 이마, 머리, 가슴 手足心에 多汗

- 번조구갈, 맥실대 - 清泄 - 백호탕

- 便乾, 腹脹, 口臭, 頭汗 - 양격산
- 食滯化熱 腹中熱感 腹脹痛 口臭 臭便 多, 조열도한 불면 설태활이 - 消導泄熱 - 양격산 加 보화환.
- 濕滯 : 濕邪가 近表경락에 맺힘 혹 비위에 맺힘 - 氣機鬱滯 - 失宣泄
- 외감습사 近皮鬱滯 - 表鬱과 同.
- 內濕 - 因비위 失調 - 반신, 머리에만 난다. 尿不利 面黃 食욕부진 - 利水和脾 - 오령산 습 영계출감탕
- 濕滯化熱 : 경락阻塞 - 미열계속, 자한도한 약간 - 清絡化濕 - 청락음(생지황, 적작약 석곡, 백미, 진교, 위령선, 송절, 사과락, 지골피, 인동)
- 濕鬱成飲性痰 痰 陰內阻 - 현음 지음 汗多 - 먼저 痰을 치료후에 飲을 치료.
- 血瘀 - 氣血운행 失調 - 진액분포失常 타박상 - 혈부축어탕으로 補氣固表 滋陰降 - 降火
- 기혈不調 영위不調 - 半身汗出 - 익기양혈, 조화기혈 - 십전대보탕, 황기 계지 오물탕
- 편탄없이 편한이면 - 계지탕 加 사과락, 백간잠, 통초.

다 증의잡지에 실린 諸家の 소아汗論모음

- ① 진씨曰 「자한, 도한 분별이 어렵고 脾氣虛하여 運化된 水穀의 精이 肺에 이르지 못하고 肌表에 도달해도 영위 不固하고 주리가 치밀하지 못해 진액이 샌다. 잠잘 때 衛氣가 陰分에 들어가 영위불고 陽기허를 틈타 表에 이르니 도한이 된다」
- ② 성씨 왈 「내상과 風傷이 있고 자한 도한 구분할 것 없이 음양실조에 원인이 있다. 기허 식체 음허 영위불화 습열로 나눌 수 있다 자한 도한 음허 양허 구분이 애매하면 실증으로 보고 열증인 경우는 꼭 변증논치 해야 한다」
- ③ 상씨 「止汗方에 황기를 重用하고 황금 황련 지황을 삼가하라」
- ④ 팽씨 「가감소식지황탕을 써라」
- ⑤ 안정상태에서 온몸 혹 국부에 땀이 난다. 소아는 장부가 약하고 주리가 치밀하지 못하며 신진대사가 빠라 음양 失調하기가 쉽고 다한이 되기 쉽다 대부분이 허에 속하나 외사침입 비위 積熱 음식적체로 오는 경우가 많다

라. 동의보감의 소아도한론

- ① 해장曰 「출생후 7년간 도한에 제약이 무효한데 양격산 삼황원을 쓰니 3일에 낫더라. 腎이 五液을 주관하고 그것이 化해서 五濕이 되니 相火가 腎을 펴박하면 腎水가 上行하여 心虛를 틈타 手少陰에 들어가 心火炎上하여 入肺하니 不勝者를 속이는 바라 皮毛가 이 때

▣ 학 술

문에 열려 玄府가 닫히지 못해 땀이 나니 먼저 양격산으로 胸中相火를 내보내고 삼황원으로 瀉心火하고 助陰하면 腎水가 근원으로 돌아가서 낫는다」 - 당귀육황탕 加 부소맥 마황근을 써라

6. 汗證外治論모음

- ① 마황근 모려 각 1돈, 적석지, 용골 각 5錢을 作末하여 바르라 - 自汗 脫汗에 특효
- ② 溫粉(단심) - 백출 고본 천궁 백지 等分 爲末 1돈을 취해 좁쌀가루 1돈과 섞어 바름
- ③ 독승산(의감) - 오배자 고백반 等分作末 침으로 개어 배꼽을 메우고 묶어 둔다
- ④ 하수오를 作末, 침에 개어 배꼽을 메우고 싸매 두라(단심)
- ⑤ 모려, 밀기울, 마황근, 고본, 찹쌀, 방풍, 백지 等分作末 전신에 바른다(입문)
- ⑥ 輕粉방 - 천궁 백지 고본 각1돈 쌀가루 3돈 爲末 면포낭에 넣어 몸에 문지르라
- ⑦ 도한에는 오배자末을 침으로 개어 배꼽을 메우고 형겁으로 덮어 두라.
- ⑧ 수족다한에는 백반 2돈半, 갈근 5錢 煎水로 1일 수회 수족을 씻어라
- ⑨ 모반단 - 음낭, 腋, 脚心에 장기간 발한이면 生瘍出水, 소痒이 심함 끓은 후 동통에 모려, 황단 2돈, 고백반 4돈을 작말 자기전에 환처에〔바르고 문지르기 3~4차에 낫는다(입문)〕
- ⑩ 脚汗 백반, 갈근 각5錢을 물 3대접에 넣고 끓여 날마다 씻고 형겁으로 감아두면 3~5일에 낫는다(본사방).
- ⑪ 마황을 잘못써 亡陰汗出不止, 病人의 두발을 水浸해 두고 찹쌀가루, 용골, 모려 末을 환처에 바른다(입문)
- ⑫ 소아도한에 二子散(오미자, 오배자 각4錢을 細末 三分하여 자기전에 반죽하여 배꼽에 붙이고 고정시킨다음 땀이 멎으면 중지.

7. 汗에 쓰이는 본초들

장부변증 팔강변증에 관계되는 약물을 제외하고 止汗 發汗에 쓰이는 약물만 기재한다

(1) 止汗劑

계지 표허자한에 쓰고 봄 여름에는 사용하지 말고 가을 겨울에만 煎服하라(동원).

산조인 수면중 발한에 약간 초해 쓴다

상엽 · 도한에 특효 靑한 二番葉을 陰乾 焙乾하여 作末하여 미음으로 調服 津液보강에

효과 있음을 경험함.

방풍 . 잎이 더 좋다는 기록이 있고 방풍근도 그냥 쓰면 발한하니 꼭 초해서 쓰라는 기록이 있어 임상에서 응용해 보니 초해서 쓰는 것이 止汗效力이 더 좋음을 경험. 초하지 않은 방풍은 발한제로 사용

모려분 하해서 쓰는 것이 좋음을 경험 煎藥에도 散粉藥으로도 쓸 수 있음.

황기 : 표허자한에 좋고 모든 汗證에 다 쓸수 있으나 겨울에 쓸때는 止汗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發汗用 약에는 섞어 쓰는 것을 진중히 살펴야 한다

마황근 : 湯劑 撒粉劑로 다 쓰임 마황줄기는 반대로 발한제

부소맥 . 표허자한에 부소맥을 못구하면 소맥을 약간 볶아 쓰거나 그냥 써도 대응이 될 듯 自汗에 麵食이 도움 된다는 문헌기록이 있다

椒目 - 도한에 妙效 탕제처방에는 용례가 없으나 微妙細末하여 半錢을 猪上唇 삶은 물로 臨臥時服하라는 기록이 있음.

오매 강한 수렴제로 쓰임.

백복령 복령피는 강한 이뇨효과. 복령은 세포의 삼투현상을 지배하여 貯水 配水の 양면 작용이 있어 다른 약과 배합하여 지한작용함

× 기타 조직을 긴축시키고 분비를 감소시키는 收斂固색 약재들중 골라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름만 열거해 본다

상표초, 권삼, 지유, 누로, 백령, 석류피, 영실(짚레알매), 오배자, 椿皮, 왕과인, 오미자, 검은, 활석, 고백반, 적석지

(2) 發汗劑

석고 · 발한 解肌去毒解熱제, 細碎水煎服

갈근 · 解肌發表出汗제 開膝理

마황 去節去根. 약성이 너무 강하니 약간 끓여 거품을 제거해 두고 쓰는게 좋다 혹 煩燥不眠의 예기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산모나 노인 극허자에 쓰지마라

부평 가장 빠른 발한제 열독제거에 농약많이 쓰는 논에서 채취한 것은 구분이 어려우니 고지대 저수지에서 직접 채취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

박하 毒汗을 나오게 함 오래 묵은 것은 효과가 떨어지니 소단위로 밀봉하여 보관함이 좋을 듯

형개 : 발한해열제, 去血風

총백 . 잔뿌리채 써야 함.

■ 학 술

자소엽 · 茶로 飲用해도 散表出汗

청주 · 발한제, 발한촉진제

목적 去節發汗

인동등 경맥에 정체된 鬱氣를 풀어낸다.

세신 煎服하면 散風出汗하나 未服하면 氣塞한다.

행인 : 자운, 散肌發汗.

두시 옛법대로 만든 두시는 구입이 불가능하나 메주콩처럼 띄워 말려 써도 효과있음

백출 : 止汗 止盜汗에 極效라 함은 부소맥과 같이 쓸 경우임. 창출은 반대로 발한제이니 엄히 구분하여 쓸 것.

× 發表驅風散寒하는 發汗약

국화 길경 곽향 당기 독활 지골피 배초향 백미 방기 방풍 백지 산장근 상산 석결명 송라 세신 승마 시호 악실 진호 죽력 죽여 지모 지실 진교 축철 천마 향유 현삼 황금 귀갑 별갑 수우각 야명사 선티 망초 응수석

× 장자화의 유문사친에 기재된 汗劑

風寒暑濕之 邪가 入表하였으나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發汗하라

辛溫 형개, 박하, 백지, 진피, 청피, 반하, 세신,, 창출, 생강,, 총백

辛熱 축초, 호초, 산수유, 대산

辛平 청피, 방기, 진교

腎酸寒 부평

甘溫 마황, 대추, 인삼

甘平 갈근, 적복령

甘寒 상백피

甘辛溫 방풍 당귀

甘辛大熱 육계, 계지

苦溫 후박, 길경

苦寒 - 황금, 지모, 지실, 고삼, 지골피, 시호

苦辛微溫 강활, 독활

苦甘平 승마

酸寒微 작약

× 병에 적중하거나 入裏하면 발한제를 더 쓰지 마라

8. 汗證치료시 조심할 사항

(1) 尿量과 汗出量은 역상관계가 있음을 참작할 것

(2) 무한증의 경우 무조건 발한시키려 하지 말라 진액이 고갈된 경우 傷人한다

(3) 방풍은 생용하면 발한 炒用하면 止汗 제가의 방약서에 구분이 안돼있고 약성가에 안나

와 있음은 이상한 일이나 세심히 분별할 필요있음

(4) 약재의 신선도, 산지, 계절에 따라 그 용량을 침작하여 증감할 것

(5) 亡陽, 亡陰, 脫汗의 경우 신속하게 回陽 助陰止汗시켜야 하나 뒷탈 생각하여 투약전 신중히 상담할 것

(6) 생강은 발한제인데 처방에 干三棗二라 기록돼 있다고 무조건 넣기 전에 처방의 의도를 살펴서 넣어야 함

(7) 發汗禁忌에 대하여

① 중경 「瘡이 있으면 發汗시켜야 할 병이 있어도 發汗시키지 말라 疾病에 걸리기 쉽다」

② 중경 「鼻衄者는 忌汗하라 모든 失血에도 그러니 血과 汗은 同根異名이다 그러므로 脫血한 사람은 無汗, 脫血한 사람은 無血한 법인데 血이 망행하는 것은 熱迫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發汗하면 도리어 熱邪를 도와서 津액을 消竭하고 반드시 凶症으로 변한다」

③ 중경 「상한소음증에 잠이 많고 권역하는데 억지로 발한시키면 血이 妄動하여 九竅溢出하여 난치가 된다」

④ 장자화의 유문사친에 「禁汗八要」

· 性剛 亂暴 易怒 好淫事者

病熱危篤 老弱 氣衰者

自吐不止者

· 破陽血虛者

吐血 衄血 咯血 溢熱者 乾嗽者

의술을 곱할기로 아는자

· 환자가 의식불명환자

주위에 말이 많아 소란할 때

(8) 발한방법에 대하여

득효云 「수족에 호뭇하게 周沾하도록 1시간쯤 하는 것이 좋고 물에 추진것처럼 淋리해서 는 안된다. 약을 먹어서 病에 中하면 그만. 약을 많이 먹을 필요 없다 허리이상은 常着服 허리이하의 厚衣를 입는 것이 좋다 허리 이상은 땀이 淋리하기 쉬워도 허리이하 足心까지는 겨우 微潤할 정도이니 병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腰脚간에 汗氣가 周遍하는 것을 한도로 하라

▣ 학 술

(9) 발한약을 몇첩이나 어떻게 먹여야 하나?

중경云 「탕약을 1일 3회 溫服하라 하였으나 병이 극심하면 연속복용할 수도 있고 1첩으로 병이 다 풀릴 수도 있으며 약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3첩은 먹어야 풀린다는 말도 신중히 생각하라 발한하여도 땀이 안나오면 死病이다」

(10) 땀을 내는 시각에 대하여

入門云 「정오전에 하는게 좋으며 새벽이나 아침에는 좋지 못하며 오후에는 陰分이 適宜하지 못하므로 汗은 일찍함을 忌하고 오전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긴급하면 시각을 가리지 말고 이불을 두텁게 하고 불을 향하여 복약한 뒤 서서히 땀을 내어 수족이 흐트하게 한다.

동원云 「일찍 하라함은 早와 晚의 早로 식별하라」 正午에 이르기 전은 陽分이니 발한의 적기요 정오 이후는 陰分이라 발한하지 말라는 뜻이다

(11) 땀을 내어야 하는 경우

내경에 云 「病이 皮에 있으면 汗으로서 發하며 病이 表에 있으면 形체를 浸潤해서 汗을 發하라」 대개 中風 傷汗 表症雜病은 汗으로 다스린다

- ① 상한표증 마황계지탕으로 발한
- ② 중풍표증 소속명탕 통기구풍탕으로 발한
- ③ 四時상한 온역 갈근해기탕 승마 갈근탕으로 발한
- ④ 四時상풍 상한감모 痲痺 : 강활충화탕으로 발한

(12) 大汗하면 亡陽

• 大汗은 氣를 損傷(득효)

• 동원 云 「汗은 본래 助陽함인데 陽이 陰邪를 받으면 寒이 맺히는것이 形이 없으니 마땅히 陰邪를 除去하고 양기를 도와야 한다 陰邪가 去했는데 다시 발한하면 도리어 陽이 傷하니 陽을 거둬하면 반드시 陰이 되고 陽이 스스로 조한다」 하였으니 「땀이 많으면 亡陽한다」 함이 그것이다

(13) 解肌의 경우

- ① 해기는 微汗이다(입문).
- ② 해기에는 갈근이 제일이요, 시호가 다음이다(강목).

《참고문헌》

동의보감	류문사친	의학입문	방약합편	경약전서
광제비급	一金方	의종금감	제중신편	윤길영방제학
대한정통한약학회편	협방선집	실용중의내과학	중의내과학	의림
중의약지	상해중의약지			

(대전 동구 가양동 T. 624-2992)

삼 식 메모

養生 七禁

- 1 言語를 적게하여 內氣를 기르고
- 2 色慾을警戒하여 精氣를 기르고
- 3 滋味를 小食하여 血氣를 기르고
- 4 精液을 삼켜서 臟氣를 기르고
- 5 瞋怒를 삼가하여 肝氣를 기르고
- 6 飲食을 가려먹어 胃氣를 기르고
- 7 思慮를 적게하여 心氣를 기른다

- 太乙真人 -